

「天保竹島一件」을 통해 본 일본의 울릉도·독도 인식*

송 휘 영**

(e-mail : hysong@ynu.ac.kr)

< 목 차 >

- | | |
|-----------------------|-----------------------|
| 1. 머리말 | 4. 하치에몽 사건과 울릉도·독도 인식 |
| 2. 「天保竹島一件」의 전말과 성격 | 5. 맺음말 |
| 3. 「天保竹島一件」의 처리와 판결내용 | |

키워드 : 天保竹島一件(Tenpo-Takeshima-Ikken), 竹島渡海禁止令(Order of Prohibition Crossing to Takeshima), 今津屋八右衛門(Imazuya Hachiemon), 密貿易(smuggling), 鬱陵島·獨島認識(recognition on Ulleungdo and Dokdo)

1. 머리말

고려 후기부터 울릉도는 동해안을 노략질하는 왜구들의 중간거점으로 왜구의 침입이 잦았다. 태종 17년(1417) 김인우(金隣雨)를 우산무릉등처 경차관으로 임명하여 울릉도 주민들을 쇄환하면서 울릉도에 대한 조선 조정의 쇄환정책(刷還政策)¹⁾이 본격화하게 된다. 그 후 몇 차례에 걸쳐 쓰시마번의 소(宗) 씨

* 이 논문은 201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5S1A 5B8A02068830)

**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연구교수, 한일관계사

1) 고려 후기부터 왜구들의 잦은 침입으로 말미암아 조정에서 거민들을 데리고 나오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데, 태종 17년에 거주민 모두를 쇄환해 오면서 쇄환정책이 시작된다. 이때부터 1882년 울릉도개척령이 반포되기까지 465년간 울릉도는 빈 섬으로 관리하게 되었다. 1417년부터 안용복 사건으로 수도관 장한상을 파견하기까지를 쇄환정책(刷還政策, 1417~1693, 276년간), 1694년부터 수도관의 파견을 폐지하는 1894년까지의 기간을 수도정책(搜討政策, 1694~1894, 201년간)이라 부른다. 김호동, 「조선 초기 울릉도·독도에 대한 '공도정책(空島政策)' 재검토」 『민족문화논총』32, 영남대학교민족문화연구소, 2005를 참조.

가 빈 섬으로 둔 울릉도에 대해 탈취 기도가 있었으나 조정에서는 강력하게 대응하였다.²⁾ 야나가와잇켄(柳川一件)³⁾을 계기로 조선과 외교관계가 수복되면서 기타마에선(北前船)을 타고 드나들던 산음지방 사람들에게 울릉도가 노출되면서 1625년 「죽도도해면허(竹島渡海免許)」를 허락받은 요나고(米子)의 초닌(町人) 오야(大谷)·무라카와(村川)가 1695년까지 71년간 도항을 하게 된다. 그러던 중 1693년 울릉도에서 조선인 어부 안용복 일행과 마찰을 빚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조일간 울릉도를 둘러싼 영속 시비가 벌어졌다.⁴⁾ 이 시비로 말미암아 「죽도도해면허」는 취소되었고 막부의 「죽도도해금지령(竹島渡海禁止令)」(1696.1.18.)으로 결착되었다. 요나고(米子)에서 독점적으로 드나들던 양가의 발길이 끊어지고 나서 울릉도에 일본인의 잠입은 128년간 잠잠했었다.⁵⁾ 그러던 것이 1836년 울릉도에서 하마다번(浜田藩)의 상인이 밀무역을 하다가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것을 두고 덴포 다케시마일건(天保竹島一件)⁶⁾이라 한다.

본고의 목적은 덴포 다케시마일건(天保竹島一件)의 추이와 사건의 중심인물인 하치에몽(八右衛門)의 행적을 통해 당시 하치에몽의 울릉도·독도 인식을 밝히는 것이다. 이 사건은 막부의 도해금지령을 깨고 불법으로 울릉도 도항을 하여 처형되는 중요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아직 선행연구는 그다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⁷⁾ 다만 에도 후기(18~19세기초) 조일 양국의 울릉도 도해 양상을 밝히는 윤유숙(2012)의 연구에서 이 사건의 전말을 세밀히 다루고 있으나 당시의 울릉도 도해 양상과 전국령인 도해금지가 내려지는 경위를 밝

2) 1612년 쓰시마태수 소 요시토시(宗義智)가 조선 동래부사에게 “이소다케시마(磯竹島)를 살펴보겠다”고 주장하여 서계의 왕복이 있었음. 『通航一覽』卷137, 「朝鮮國部」113.

3) 임진왜란·정유재란으로 국교가 단절되어 이의 재개를 도모하기 위해 1605년 국서를 위조하여 무역 협정인 기유조약(己酉約條, 1609)이 체결되었고 1617년, 1624년 3차에 걸쳐 국서의 위조·개찬이 이루어졌음. 이것을 쓰시마번의 가로(家老) 야나가와 시게오키(柳川調興)가 내부고발을 하였고, 1635년 3대장군 이에미즈(家光) 앞에서 이루어진 구두변론의 결과, 소 요시나리(宗義成)는 무죄, 야나가와(柳川調興) 츠가루(津軽)에 유배(流罪)되는 것으로 결착됨.

4) 이것을 두고 한국에서는 ‘울릉도쟁계’, 일본에서는 ‘겐로쿠 죽도일건(元祿竹島一件)’이라 부른다.

5) 1696년 이후 하마다번(浜田藩)의 하치에몽(八右衛門)이 울릉도에 처음 가는 것은 1824년의 일이다. 『浜田町史』(1935), p.146, 송휘영(2014), 『일본 향토사료 속의 독도』 선인, p.214.

6) 안용복(安龍福) 사건을 ‘죽도일건(竹島一件)’, 하치에몽(八右衛門) 사건을 ‘죽도사건(竹嶋事件)’ 혹은 ‘죽도일건(竹嶋一件)’이라 불렀으나, 최근 전자를 ‘겐로쿠 죽도일건(元祿竹島一件)’ 후자를 ‘덴포 죽도일건(元祿竹島一件)’이라고 하여 구분하고 있음.

7) 「죽도사건」의 전모를 정리한 것으로, 森須和男, 『八右衛門とその時代』(岩見学ブックレット 3, 浜田市教育委員会, 2002年)가 있다.

히는데 머물고 있다.⁸⁾ 또한 최근 사료의 번역작업이 이루어지면서 하치에몽 사건에 관련되는 사료를 소개하고 있는 것으로 윤유숙(2011), 송휘영(2014)이 있다.⁹⁾ 일본에서 이 하치에몽 사건을 다룬 연구로 박병섭(朴炳涉, 2015), 모리스 가즈오(森須和男, 2002), 다케우치 다케시(竹内猛, 2014)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일본 시마네현 「죽도문제연구회」에서는 이 하치에몽 사건에 관한 사료를 당시 독도를 일본 영토로 간주했다는 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나¹⁰⁾ 실상은 사실(史實)이 왜곡되어 있다.

2. 「天保竹島一件」의 전말과 성격

「덴포 다케시마일건(天保竹島一件)」이란 덴포(天保) 7년(1836)에 발생한 것으로 이와미국(石見国) 하마다(浜田)의 이마즈야 하치에몽(今津屋八右衛門)¹¹⁾이 울릉도에서 조선과 밀무역을 하다가 발각된 사건이다. 이 사건은 죽도사건(竹島事件), 죽도일건(竹島一件), 덴포 죽도일건(天保竹島一件)이라고도 부르는데, 에도(江戸) 후기 1830년(天保1) 무렵부터 1837년(天保8)년까지의 8년간에 일어난 이와미(石見) 하마다번(浜田藩) 마츠이·마츠다이라(松井松平)를 무대로 한 밀무역 사건이다. 에도시대 번(藩)이 사적으로 외국과 무역하는 것은 국법(海禁)에 의해 금지되고 있었으나 운송업자(回船問屋) 아이즈야 하치에몽(会津屋八右衛門)¹²⁾은 빚에 괴로워하는 번 재정을 재건하기 위해서 밀무역을 제안하게 된다. 이는 그의 아버지 세이스케(清助)의 영향으로, 세이스케는 번의 관

8) 윤유숙(2012), 「18~19세기 전반 朝日 양국의 울릉도 도해 양상」 『東洋史学研究』 제118집, pp.281-321.

9) 윤유숙(2011)은 하치에몽에 관한 사료 『天保雜記』의 해제를 제시하고 있으며, 송휘영(2014)에서는 하치에몽사건의 전말을 나타낸 『濱田町史』 및 『島根県史』의 「竹島事件」에 관한 기록 부분의 전문을 소개하고 있음.

10) 예를 들어 시마네현 「죽도문제연구회」의 스기하라 다카시(杉原隆, 2007)는 “울릉도(죽도) 도해는 그만두고 송도(松島)=독도로 하라”는 상부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울릉도 도해를 결행했다고 한다. 杉原隆, 「八右衛門、金森建作、松浦武四郎の「竹嶋之図」について」、『「竹島問題」に関する調査研究』最終報告書』, 竹島問題研究会, 平成19年3月, p.22. 또한 「죽도문제 100문 100답」(Q64)에서 “죽도(울릉도)는 일본 땅이라고 하기 어려우니 인정할 수 없지만, 송도(독도)라면 좋다”고 에도저택 재근의 번주 야스토(康任)가 회답하여, 하치에몽 등은 송도에 간다는 명목으로 죽도로 가기로 결정했다고 하고 있다. 竹島問題研究会『竹島問題100問100答』, pp.150-154.을 참조.

11) 아이즈야 하치에몽(会津屋八右衛門)이라고도 하나 이마즈야(今津屋)가 정확한 성이다.

12) 그는 선대부터 하마다번(浜田藩) 어용상인(御用商人)이었음.

용 해상운송선(回船御用)의 일을 맡아 항해 도중 기슈(紀州)¹³⁾ 앞바다에서 풍랑을 만나 표류하는 사건이 있었다. 네덜란드 상선에 의해 구조되어 돌아온 아버지 세이스케의 경험으로부터 남양(南洋)의 많은 지역을 알게 되었고 그곳과의 무역을 생각하게 되었던 것이다.¹⁴⁾ 이 덴포 죽도일건은 표면적으로는 울릉도 도해로 말미암은 것이지만 실은 대만 남양지방으로 가서 외국인과의 무역한 것을 가지고 돌아와 국내로 유통시켰음으로 쇄국령(1635)¹⁵⁾에 의한 막부(幕府) 해금(海禁)을 어겼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이 사건의 경위를 보면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시작되었다. 하마다(浜田) 마츠바라(松原) 태생인 세이스케(清助)는 당시 일본 최대의 2,300석 규모인 아호마루(阿保丸)를 건조하여 번(藩)의 어용선(御用船)으로 운송업을 하는 사람이었다. 이 아호마루는 번의 종이(半紙), 철강(鐵鋼) 등을 적재하고 오사카(大坂)와 에도(江戸)로 자주 왕복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오사카와 가까운 기슈 앞바다에서 폭풍을 만나 배가 파괴되어 배와 공용화물을 모두 바다 속에 잃어버렸다. 가까스로 선주인 세이스케는 배의 파편을 잡아타고 표류하다가 무인도에 도착하였고 그곳에서 다시 작은 배를 만들어 남풍을 타고 출항하다가 바람에 의해 표류하였는데 네덜란드 배에 의해 구조되었다. 이 네덜란드의 배는 파푸아, 스마트라, 캄보디아, 샴(타이), 루손 등을 거쳐 나가사키로 돌아왔다. 표류로부터 3년 후인 1822년에 세이스케는 고향 마츠바라로 돌아왔고 그의 무용담은 ‘남풍이 춥고 북풍이 따뜻하다’는 것이므로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 오직 가족들만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세이스케의 아들 하치에몽은 와타나베 가잔(渡邊華山)¹⁶⁾의 지리서를 보고 아버지의 말이 거짓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때 선박의 파손으로 어용선 업자의 지위를 박탈당하였음은 물론 이마즈야(今津屋)은 손실에 대한 배상으로 가산을 탕진하였다.¹⁷⁾ 하치에몽은 아버지의 신기한 이야기에 분발하여 집안의 명성을 만회하고 가운과 신용을 되찾고자 결심하였다. 이로 인하여 죽도일건은 일어났다. 그리하여 남양무역의 동기가 생

13) 기이노쿠쿠니(紀伊国), 지금의 와카야마현(和歌山県).

14) 『濱田町史』(1935), p.208.

15) 에도 막부는 주인선(朱印船)과 봉서(奉書) 이외의 어선에 대한 도해금지를 내리는 「제1차 쇄국령」(1633)에 이어 1635년부터는 「제3차 쇄국령」으로 일본인의 해외 도해를 엄금하고 있었다. 쇄국령은 1638(寬永16)년 「제5차 쇄국령」까지 이어짐.

16) 1793~1841년. 에도 후기의 무사이자 화가. 미카와국(三河国) 다하라번(田原藩)의 번사. 당시 ‘난학의 대가’로 불릴 만큼 난학자들의 지도자적인 존재였음.

17) 『濱政町史』(1935), pp.139-145.

겨났고 이를 결행하기로 결심하게 된다. 그러나 거기에는 2가지 난관을 돌파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하나는 자본이 필요하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해외에서 가져오는 상품의 판매방법이었다. 이 때문에 반드시 하마다번의 지원을 받아야 했다. 당시 필두로쥬(筆頭老中)였던 번주 마츠다이라 야스토(松平康任)¹⁸⁾의 명성을 이용하고자 했다. 그리하여 하치에몽은 일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복심의 인물인 번의 간조가타(勘定方) 하시모토 산베에(橋本三兵衛) 밖에 없다고 판단하여 그에게로 가서 죽도무역의 이익을 설명하였다. 그에게로 가기 전에 하마다번의 가로(家老) 마츠다이라 와타루(松平亄)의 소개로 쓰시마번의 가신 마츠무라 다지마(松村但馬)를 찾아가 죽도가 일본 영내인지 아니면 조선의 영지인지를 물었으나 명확한 대답을 듣지 못했다. 이러한 조사의 결과를 비밀리에 산베에에게 설명하고 이 섬이 무인도라면 죽도무역의 결심을 할 수 있다고 설득하여 협력을 요청하였다. 당시 하마다번은 번의 재정이 상당히 궁핍한 지경에 있었다. 따라서 하마다번은 번 재정을 살리기 위해 하치에몽의 청원을 받아들여 협력하였고 막부 몰래 울릉도로 건너가 조선과 밀무역을 하였다. 거기서 단지 울릉도에서의 조선과의 교역에만 머물지 않고 나아가 스마트라, 자바 등 멀리 동남아시아 지역에까지 발길을 뻗쳐 무역을 한 것이었다. 여기서 얻은 이익은 당시 번정 적자로 곤란을 겪고 있었던 하마다번에게 많은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주었다.

이 밀무역에는 하마다번의 재국 가로(在國家老) 오카다 다노모(岡田頼母), 재국 도시요리(在國年寄) 마츠이 즈쇼(松井図書)도 관여하고 있었으며, 번주(藩主)이자 로쥬(老中)였던 마츠다이라 야스토(松平康任)도 이를 묵인하고 있었다. 울릉도도해 사업은 계획대로 큰 이익을 얻어 번재정 재건은 성공해 갔으나 막부의 밀자인 마미야 린쥬(間宮林蔵)에게 밀무역이 탐지되어 발각되어 버린다. 규슈지역을 가기 위해 우연히 하마다를 들렀던 마미야(間宮)가 여관에서 보고 들은 것은 남국에서 들어온 진귀한 물건이었고, 그 후에 규슈로 건너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오사카(大坂)에 들러 오사카마치봉행(大坂町奉行) 야베 사다노리(矢部定謙)에게 하마다번(浜田藩)의 움직임에 주의할 것을 당부하게 된다.

18) 1779~1841. 에도 후기의 다이묘(大名)이자 로쥬(老中)로 이와미(石見) 하마다번(浜田藩)의 제3대 번주(藩主). 마츠이 마츠다이라(松井松平)가의 8대. 사지부교(寺社奉行), 오사카조다이(大坂城代), 로쥬(老中) 등 막부의 중책을 역임하였음. 특히 제11대 쇼군 이에나리(家齊)의 치세기간 중 로쥬(老中)으로 재직. 재직 기간은 1827년 11월~1835년 10월. 윤유숙(2011), p269.를 참조.

1836년(天保7) 6월, 오사카마치봉행의 손에 의해서 다노모(賴母)의 가신으로
 번 회계담당(藩勘定方) 하시모토 산베에(橋本三兵衛)와 이마즈야(今津屋)가 체
 포되어 같은 해 12월 23일에 처분이 막부로부터 내려졌다. 다노모와 즈쇼는 조
 사 도중에 할복자살 하였고, 하시모토와 이마즈야는 참형(斬罪) 그리고 번주인
 야스토(康任)는 사형은 면했지만 장기칩거(永蟄居)가 명해졌다. 차남 야스타카
 (康爵)에게 가독(家督)의 상속은 허락되었으나 머지않아 무츠(陸奥) 다나쿠라
 (棚倉)에 징벌적 전봉(懲罰的轉封)을 명함으로써 하마다번에서 마즈이·마즈다
 이라(松井松平) 가문에 의한 통치는 끝나게 되었다.¹⁹⁾ 그러나 하마다번에게 있
 어서 다노모, 즈쇼와 하시모토, 이마즈야 등은 세금의 증액이나 녹봉 감액을
 하지 않고서도 재정위기를 구한 인물로서 지역에서는 추앙받는 사람들이다.²⁰⁾

이때 관련자에 대한 처벌과 더불어 에도막부가 내린 「죽도도해금지령」(1837
 년 2월)은 겐로쿠시대(元祿時代)에 내린 죽도도해금지를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내린 전국령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 전문을 보면 다음과 같다.

「텐포(天保) 8년 죽도 등에 도해금지령

이번에 마쓰다이라(松平) 스오노카미(周防守)의 전 영지(領分)였던 세키슈(石
 州) 하마다(浜田) 마쓰바라(松原) 포구에 있던 무숙(無宿) 하치에몽(八右衛門)
 이 죽도(竹嶋)에 도해한 일건(一件)을 조사(吟味)한 다음 하치에몽(八右衛門)
 과 그 외의 사람을 각각 엄하게 다스렸습니다.

위의 섬은 예전(往古) 하쿠슈(伯州) 요나고(米子)의 사람들이 도해하여 고기를
 잡고 있었으나 겐로쿠(元祿) 시기에 조선국에 건네준 이래 도해를 정지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모든 이국도해의 건은 금제하고 있으며, 향후 위의 섬에 대
 해서도 마찬가지로 주의하여 도해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각국의 회선 등 해
 상에 있어서는 이국선에 조우하지 않도록 항로 등을 주의하여야 한다는 것을
 작년에도 지적한 대로 더욱 더 지켜서 이후에는 가능한 한 먼 바다로 나가지
 않을 것을 분부합니다. 위의 취지를 영지(御領)에는 대관(代官), 사령(私領)은
 영주(領主)나 지두(地頭)가 바닷가나 마을에 빠짐없이 알리도록 해야 합니다.
 우선 이 취지를 표찰에 적어서 게시판을 적어두는 곳 등에 걸어두도록 해야
 합니다.

19) 다만 야스토(康任)의 장기칩거에 관해서는 당시 발생한 센고쿠소동(仙石騷動)도 관련이 있음.

20) 하마다의 마쓰바라항(松原港)에는 내각총리대신 岡田啓介 명의의 「아이즈야 하치에몽 송덕비(松
 津屋八右衛門頌德碑)」(昭和10年12月23日 건립)가 세워져 있음.

덴포(天保) 8년(1837) 유(酉) 2월 위와 같이 지시합니다. 【「天保渡海禁止令」1837년(天保8年)】 21)

이때 에도 막부로부터 내려진 처분은 매우 단호한 것이었다. 그것은 겐로쿠 시대에 이미 내려진 금제(禁制)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도 있지만, 밀무역 내용에 남국의 산물뿐만 아니라 도검류(刀劍類) 등의 무기까지 거래했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근세·근대를 통해 일본인의 울릉도 잠입은 크게 5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첫 번째가 안용복 시기에 발생했던 오야(大谷)·무라카와(村川) 양가에 의한 도해로 이 시기에는 조선땅 울릉도에 ‘죽도도해’라는 명목으로 막부의 허가를 받아 이루어지는데 이때의 중요한 목적은 전복 등을 채취하는 어로활동과 산림을 벌채하는 벌목에 있었다. 71년간 이루어진 도해로 오야(大谷) 가문은 일약 요나고(米子)의 부호로 급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수년에 1회 에도 장군에게 알현하는 특권이 주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1692년 울릉도에 조선인 도항자들과 경합이 이루어지면서 1693년 안용복 납치사건이 발생한다. 이 사건을 계기로 발생한 것이 울릉도를 둘러싼 영유권 분쟁으로 「울릉도쟁계」(竹島一件)가 발생하였던 것으로, 결국 「죽도도해금지령」(1696.1.28.)을 내림으로써 타결이 되었다. 이때의 금지령(禁制)를 제1차 「죽도도해금지령」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울릉도 도해가 이루어진 것이 이 「죽도사건」의 주모자 하치에몽이었다. 당시 울릉도에서 벌목을 하여 일본으로 실어 나르기도 했지만 조선인과의 밀무역에 주된 목적을 두고 있었다. 도항이 이루어진 것은 7년간(1830~1836)이었지만 밀무역에 의한 수입은 꺾박한 재정적자를 안고 있었던 하마다번에게는 아주 중요한 재정수입을 안겨다 주는 것이었다. 하지만 일본관 암행어사 마미야 린조(間宮林藏)에게 발각되면서 과중한 처벌과 「죽도도해금지령」(1837.2, 제2차)을 전국령으로 막부가 내리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21) 「天保8年(1837) 竹島他への渡海禁止令

今度松平周防守元領分石州濱田松原浦ニ罷在候無宿八右衛門竹嶋江渡海いたし候一件吟味之上、右八右衛門其外夫々嚴科ニ被仰候。右嶋往古ハ伯州米子之者共渡海魚漁等いたし候得共、元祿之度、朝鮮国江御渡ニ相成候以來、渡海停止被仰付候場処ニ有之願出異国渡海之義者重キ御製禁ニ候條、向後右嶋之義も同様ニ相心得渡海いたす間敷候。勿論國々之廻船等海上ニおゐて、異國船ニ不出合様、乗筋等心かけ可申旨。先年も相触候通り弥相守以來者可成たけ遠沖乗不致様、乗廻り可申候。右之趣御科者御代官私領者領主地頭ヨリ浦方村町共不洩様、可触知候。尤触書之趣板札ニ認、高札場等ニ懸置可申者也。 二月 右之通可被相觸候。」

【「天保渡海禁止令」1837年(天保8年)】

<표1> 근세 이후 일본인의 울릉도 도항(침입)의 목적과 활동: 1625~1910

| 시 기 | 도항자 | 규모 | 도항의 주목적 | 비 고 |
|-----------------------|------------------------|----------|------------|-------------------------------|
| ①17C (1625~1695) | 오야(大谷)·무리카와(村川) | 약20~30명 | 어렵(별목)* | 「죽도도해금지령」 (1696.1.28.): 1차 |
| ②19C초반 (1830~1836) | 이마즈야 하치에몽 (今津屋八右衛門) | 20여명(?) | 밀무역(별목) | 「죽도도해금지령」 (1837.2.): 2차 |
| ③19C중반 (1878~1883) | 야마구치현(山口県) 등 별목꾼 | 400여명 | 별목(어렵) | 「울릉도도항금지령」 (1883.4.): 3차 |
| ④19C후반 (1884~1900) | 산음지방 사람들 | 100~230명 | 별목(채취, 어렵) | - |
| ⑤20C초반 (1901~1910) | 산음지방 사람들 | 200명 이상 | 어렵 | - |

자료: 필자 작성

주: * () 안은 부수적 목적

그 후 40년 정도의 기간 동안 울릉도행은 잠잠해졌다. 일본인이 다시 울릉도에 침입을 하는 것은 1878년 봄부터였다. 메이지 신정부가 발족하고 「정환론」과 「죽도개척론」 등이 논의되던 시기에 야마구치현(山口県)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조직적인 침입이 시작되었다. 이때 도항에 관여한 것이 당시 해군경(海軍卿)²²⁾이었던 에노모토 다케아키(榎本武揚)였다. 이때의 잠입은 당시 울릉도를 조사하던 수토사에게 발각됨으로써 조건 조정으로부터 강력한 항의를 받게 된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1883년 4월 「울릉도도항금지령」이 발령됨과 동시에 일본인 별목꾼의 철수작업이 일본 군함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그해 말까지 철수가 완료되었다. 그 후 조일통상관계의 변화로 이듬해부터 다시 일본인의 울릉도 잠입은 이루어졌다. 이 시기의 울릉도행은 수목의 무단벌목에 의한 수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었고 도항자 중에는 어로활동을 위해 건너가는 자도 있었다.

3. 「天保竹島一件」의 처리와 판결내용

우선 여기서 하치에몽(八右衛門)이 먼 바다로 도해할 꿈을 키운 것은 기슈

22) 당시는 태정관제 하의 직제로 후일의 해군성대신(海軍大臣)에 해당하는 직위였음.

(紀州) 앞바다에서 난파하여 구사일생으로 돌아온 아버지 세이스케(清助)의 영향이었다. 살아 돌아온 아버지로부터 남양의 바다 멀리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들으면서 먼 바다로 나갈 생각을 하게 된 것 같다. 그렇지만 당시 에도 막부는 먼 바다로의 도해를 금지하는 해금(海禁)정책을 실시하고 있었으므로 막부의 허가를 받은 주인선(朱印船) 이외의 선박은 해외로의 도해가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해를 하고자 하는 동기가 강하게 발생한 것은 아버지 세이스케의 배가 난파로 파손된 탓에 그 배상 등으로 가업이 몰락하여 궁핍한 상황에 처해 있었으므로 자신의 가문을 어떻게든 일으켜보겠다는 생각이 강했던 것이다.²³⁾

원양항해를 하기 위한 실마리로써 찾아낸 것이 울릉도(죽도)였고, 원양항해의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우선 죽도도해를 결심하게 된다. 그가 처음 울릉도로 간 것은 그의 아들 다케지로(竹次郎)가 태어난 1824년(文政7)이라고 되어 있다.²⁴⁾ 그 후 와타나베 가잔(渡邊華山)의 가르침을 받아 아오이케 린소(靑池林宗)의 『만국지지(万国紙誌)』 등을 통해 지식을 터득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하치에몽은 번의 가로(家老) 오카다 다노모(岡田頼母)와 회계담당(勘定方) 하시모토 산베에(橋本三兵衛)에게 도모하여 죽도도해를 구체화한다.

도쿄대 부속도서관 소장 『죽도도해일건기 전(竹嶋渡海一件記全)』은 1990년 모리스(森須) 씨에 의해 발견되었고 이 사료에 의해 하치에몽 사건의 전모가 보다 결정적으로 밝혀지게 된다. 이 자료는 공술조서의 초록이며 일급자료라고 할 수 있다. 이 자료를 기본으로 하여 하치에몽 사건을 추적해보자. 하치에몽은 마츠바라포구(松原浦)에서 택호(家名)를 이마즈야 하치에몽(今津屋八右衛門)으로 신고하고 회선 1척을 소유하여 자신이 직접 승선하는 직승선장(直乘船頭)을 하고 있었다. 1830년(天保1) 7월 마츠다이라 에츄노가미(松平越中守)의 영지 에치고노쿠니(越後国)²⁵⁾의 각 마을의 조공미를 에도(江戸)로 운송하는 일을 맡게 되었다. 니가타(新潟)에서 직접 물건을 신고서 출항하였고, 가끔 풍랑을 만나면서도 1831년(天保2) 7월 에도에 도착하였다. 이렇게 조공미를 실어 나르는 것을 무리 없이 끝냈다. 그러나 배가 고장이 나서 할 수 없이 폐선하고 승무원 전원에게 휴가를 주었다. 하치에몽은 다른 불일이 있어 그대로 그곳의

23) 『浜田町史』(1935), pp.147-150, 번역판은 송휘영(2014), 212-215를 참조.

24) 앞의 송휘영(2014), p.214.

25) 지금의 니이가타현(新潟県).

여관에 머물렀다. 이전부터 잘 알고 있었던 에도 번저 회계담당(勘定役) 무라이 오기에몽(村井萩右衛門)의 집으로 가서 죽도(竹島)도해를 부탁해두었다.

처음 죽도(울릉도)까지 가장 가까이 간 것은 마츠마에(松前)로 운송하던 때로 5~6년 이전의 일이었고, 그 이후에도 마츠마에(松前)로 도해할 때마다 안타까워했다. 죽도는 이와미국(石見国)의 해안에서 북서 방향 100여리 떨어진 곳에 있으며 일명 울릉도라고도 말하고 있는 빈 섬으로 초목이 번성하고 해안에는 전복이나 물고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 섬에 도해하여 벌목을 하고 어업을 한다면 개인의 이익이 됨은 말할 필요도 없고, 마츠다이라스오노가미(松平周防守) 님은 중역(老中)이기도 하고 죽도도해허가를 해준다면 스오노가미(周防守) 님의 재정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가장 큰 것은 국익이 된다고 말하였다. 부탁을 해두고 나서 자신의 일로 돌아왔다. 1831년 8월 어느 날 무라이 오기에몽(村井萩右衛門)님에게 의견서를 가지고 갔다. 의견서에는 「죽도 이외에 이와미국(石見国)해안으로부터 북방에 이르는 해상 70~80리 정도 떨어진 곳에 송도(松島=독도)라고 부르는 작은 섬이 있으며, 이 송도·죽도 두 섬 모두 빈 섬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대로 두는 것은 안타까워 견딜 수 없습니다. 나무를 벌목하고 어업도 한다면 저의 이익이 될 뿐 아니라 막대한 국익이 된다고 기대됩니다」고 되어 있었다. 이는 수오노가미(周防守) 님에게 운송세(冥加銀)를 상납하는 액수는 시험적으로 조회해 보고 배분을 정하는 것으로 하고 두 섬으로의 도해를 비밀히 허락해 주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결국 죽도도해는 허락되지 않았다.

그리하여 하치에몽은 다노모와 산베에에게 도모하여 죽도도해를 비밀리에 결행하기로 한다. 1833년 드디어 송도(松島)를 지나 죽도(竹島)로 도항을 했던 것이다(<표2>를 참조). 그해 6월 14일 죽도로의 출항을 준비하고 아와지야 겐베에(淡路屋善兵衛)와 선원 시게스케(重助), 신베에(新兵衛), 구메조(久米藏), 오토고로(音五郎), 야스키치(安吉), 신사쿠(新作) 등 6명과 함께 진토마루(神東丸)에 탑승하여 6월 15일 하마다를 출항하였고, 본격적인 죽도도해가 드디어 이루어졌던 것이다. 하치에몽의 죽도도해의 횟수는 그의 진술서에는 1833년 1번뿐이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문서 기록을 종합해 보면 적어도 1833년, 1834, 1835년 등 3번 도해했다는 기록이 있다.²⁶⁾ 또한 『하마다정사』의 기록 등을 함께 종합해 보면 1824

26) 사사키가(佐々木家) 소장 『竹嶋島』에는 세케슈 하마다(石州濱田)의 초닌(町人) 金屋清右衛門(金清=今津屋八右衛門)는 적어도 3번 도해했다고 함.

년과 함께 적어도 4번 이상 도해했음을 알 수 있다. 더구나 『소네가문서(中根家文書)』에서는 이 일건의 풍설로 1836년(天保7)까지 30년 정도(文化4년부터)의 기간 왕래하고 있었다고 한다. 30년 전이라는 것은 조금 과장된 표현일 수도 있다. 하지만 하치에몽의 진술처럼 1833년(天保4)의 한 번뿐만 아니라 적어도 수차례 이상 도해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표2>를 참조).

<표2>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이마즈야 하치에몽(今津屋八右衛門)의 족적

| 서기 | 연월일 | 내용 및 출전명 | |
|-------|---------------|--|---|
| 1791년 | 寛政3년 5월 28일 | 原田浦 半兵衛 冲乗清助 4인 승선 (鷺浦『船御改帳』 安達家文書) | △ |
| " | 5월 28일 | 嶋田屋半兵衛 福吉丸 (温泉津『廻船入津改帳』) | △ |
| " | 불명 | 松原 今津屋清助 同勘三郎(田万川『御客船帳』)茜屋 | |
| 1798년 | 寛政10년 | 세이스케(清助)와 기쿠(キク) 사이에 하치에몽 출생 모 기쿠(キク) 22세(薩摩『斎興公史料』) | |
| 1799년 | 寛政11년 11월 23일 | 勘三郎의 아버지 彦五郎이 사망함. 계명(戒名) 良源信士(今津屋墓石名) | |
| 1807년 | 文化4년 7월 4일 | 11인승 神福丸 今津屋清助(飛嶋『御客船帳』)沢口屋 | |
| 1810년 | 文化7년 6월 29일 | 清助의 아버지 勘三郎 사망. 계명 宗受信士(今津屋 묘석명) | |
| " | 文化7년 11월 15일 | 濱田浦에서 160가옥이 소실되었을 때 外野浦에 들어와 있었던 但馬 国の 선원 14명이 소화를 도와줌 (『調留』 浅野家文書) | |
| 1812년 | 文化9년 | 하마다 지배인 今津屋久三郎 오야가타(親方) 세이스케(清助) (尼瀬『諸国御客帳』)泊屋佐野家文書) | |
| 1813년 | 文化10년 | 에도에 꽤 오랫동안 체류함 (『清助の手紙』和久屋俵家文書) | |
| 1814년 | 文化11년 | 에도에 꽤 오랫동안 체류함. 매대의 교섭을 함(『清助の手紙』和久屋 俵家文書) | |
| 1815년 | 文化12년 | 세이스케가 아무개 앞으로 보낸 편지(일부 파손) 神福丸 2000석, 21 인승에 대해 만약 실현한다면 이 정도의 이익을 올린다고 계산표에 기록함(『清助の手紙』和久屋俵家文書) | |
| 1817년 | 文化14년 6월 2일 | 16인승 神徳丸 石州松原浦 今津屋清助 (飛嶋『御客船帳』)沢口家) | |
| " | 文化14년 8월 11일 | 神徳丸 선장 清助 石見国濱田(福浦『毎年大例祭神楽船簿』) | |
| " | 文化14년~文政2년 | 松平周防守家に 대하여 큰 손실을 냄. 이로써 가문의 이름이 끊어 짐. | |
| 1819년 | 文政2년 7월 28일 | 今津屋清助 大坂에서 사망. 범명(戒名) 宗受 (浜田『光西寺過去帳』) | △ |
| " | 文政2년~天保1년 | 하치에몽은 松前に 자주 도해함. 회선 1척 소지하고 직접 선장이 되어 도해함. 松原浦에서 택호명(家号名)을 今津屋하치에몽으로 함. | |
| 1828년 | 文政11년 10월 7일 | 越前 즈가루에서 난파해 사망함 西入 松原 今津屋弥右卫門(浜田『光西 寺過去帳』) | △ |
| 1829년 | 文政12년 4월 18일 | 松原 今津屋清助 모친 사망. 계명 真阿(浜田『光西寺過去帳』) | |
| 1830년 | 天保1년 7월 | 松平越中守御領所 越後国 村之 御年貢米을 新瀉에서적재하고 에도에 | |

| | | | |
|-------|--------------|--|-------------|
| | | 운입 운반을 수락함 (『竹嶋渡海一件記 全』) | |
| 1831 | 天保 2년 7월 | 에도에 착선 | |
| " | 天保 2년 11월 | 에도로 감 | |
| " | 12월 그믐 | 육로로 귀국 | |
| 1832년 | 天保3년 2월7일 | 国許出立 | |
| " | 2월16일 | 오사카에 도착함 | |
| " | 2월16일 | 배목수 藤三郎 80석의 회선을 신조함. 배 대금 3관 200목. | |
| " | 7월18일 | 神東丸출항 | |
| " | 7월18일 | 神東丸, 広島 도착. 하치에몽은 육로로 하마다를 향해 8월 20일 도착 | |
| " | 7월18일 | 神東丸, 長州上之関으로 | |
| " | 7월18일 | 神東丸, 長州赤間関으로 | |
| " | 9월2일 | 神東丸, 濱田출항, 9월16일 오사카에 도착 | |
| " | 天保3년 이전 | 石州에 大麻山에 大麻明神의 사당이 있다. 영산으로 주변에 큰 나무가 무성하다. 근년 이 나무를 벌채하여 통나무로 판매하면 많은 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건의하는 자가 있었는데 겨우 2, 3본을 벌채하였다. 통나무를 자르는 것을 선원을 이용한 것이었으므로 그 사람을 영내에서 추방하는 것을 사면해주었다. 죽도 도항을 권유하였다. (『松井某가 말함』 安部井帽山筆記) | |
| 1833년 | 天保4년 6월15일 | 하마다 출항 | |
| " | 6월15일 | 長州 三嶋 앞바다에 표착함 | |
| " | 6월15일 | 福隠 浦岐国에 도착함 | |
| " | 6월15일 | 松嶋 앞바다를 지나감 | |
| " | 7월21일 | 竹嶋에 도착함 | ● |
| " | 8월9일 | 竹嶋를 출항함 | |
| " | 8월9일 | 長州 越々賓에 표착함 | |
| " | 8월15일 | 하마다 도착함 | |
| " | 8월15일 | 천보4 己年 石州 하마다초년 金屋清右衛門이 渡海해 돌아왔다. 동5,6년에도 도해하였다. 천보6년말 정월3일 福隠 嶋前崎村에서 옮겨 적음(『竹嶋図』) | ● ● ● |
| 1834 | 天保6년 8월16일 | 松原 今津屋八右衛門의 아들 兼八郎사망. 계명 宝雲 | |
| 1835 | 9월25일 | 祇園宮御日待의 안내 今津屋八右衛門様(八百吉), 今津屋長三郎様(岩田氏), 今津屋忠三郎様, 今津屋惣次郎様 (津間屋次之助) | △ |
| 1836 | 天保7년 3월초순(春) | 하치에몽이 하마다에서 오사카마치봉행 矢部駿河守의 부하에게 체포됨 (5월 8일 설도 있음-中森屋文書) (『天保雜記』) | |
| | 3월초순(春) | 大坂町봉행소에서 취조를 받음 | |
| | 6월6일 | 에도에 보내진 南町봉행 筒井伊賀守의 심문을 받아 감옥에 들어감 | |
| | 7월10일 | 伊東播磨守에게 맡겨짐, 습진으로 약을 부탁함 | |
| | 12월23일 | 伊賀守가 선고를 내렸고, 「부주의(不屈)로 처형한다」고 하여 즉각 형이 집행 (『竹嶋渡海一件記 全』) | |

출전: 森須和男 『八右衛門とその時代』, pp.98-99에서 인용.

주: △은 사실관계가 불명확한 부분. ●은 죽도(울릉도도해 기록).

이러한 죽도도해에 대한 비밀은 불과 6년을 가지 않아 발각되었다. 1836년(天保7)이 되어 마침내 발각되었던 것이다. 이것이 어떻게 탄로 났는가 하면, 당시 사츠마(薩摩)27)가 밀무역을 하고 있다는 풍문이 있었고 그 사정을 정탐

(密偵)하기 위해 외국의 물산에 대해 지견이 넓은 마미야 린조(間宮林藏)²⁸⁾를 파견하였다. 어떠한 사정인지 길을 산음도(山陰道)²⁹⁾를 통하여 하마다의 동쪽 1.5리³⁰⁾에 있는 시모코(下府)에 왔을 때 머물렀던 집에서 우연히 중국과 인도 사이의 연안에서 생산되는 나무를 보고 “어디에서 구했기에 이런 나무가 있는가?”라고 물어보니 “마츠바라(松原)의 배 만드는 곳에서 샀으나 지금쯤은 없다. 배가 돌아오면 가끔씩 있다”고 대답하였다. 뭔가 수상하다고 생각하였지만 자신이 부탁받은 이외의 일이었으므로 깊이 물어보지 않았다. 마츠바라를 조금 둘러보았으나 그곳에서는 주의 깊게 비밀로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고 하나의 물건도 찾지 못하고 그러한 수상한 일은 들을 수 없었다. 그대로 규슈로 건너가서 돌아오는 길에 오사카(大坂)에 들러 오사카마치부교(大坂町奉行) 야베 사다노리(矢部定謙)³¹⁾ 스루가노카미(駿河³²⁾守)에게 보고하고 하마다 지방을 주의 하도록 하였다. 야베 스루가노카미(矢部駿河守)는 탐정(隱密)을 하마다에 보내어 정탐하게 하고 다시 관리를 파견하여 하치에몽(八右衛門)과 산베에(三兵衛)를 체포하여 오사카에 데리고 왔다. 그때 이미 산베에와 하치에몽은 함께 각오하고 있었던 것이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산베에(三兵衛)는 우야가와(敬天)·하시(波子)의 친척을 불러 증표의 물건을 주며 처와 처의 전남편의 자식을 하시모토(橋本) 씨의 호적(宗門帳)에서 분리하였다. 기무라(木村) 씨로 하여금 하치에몽(八右衛門)도 처에게 이혼증(去狀)을 주어 고향 나가하마(長濱)³³⁾의 와카마츠야(若松屋)로 돌아왔던 것이다.

27) 사츠마국(薩摩国). 지금의 가고시마현(鹿兒島)의 옛 명칭.

28) 에도 후기의 탐험가. 1780~1844. 이름은 도모무네(倫宗). 이노 다다타카(伊能忠敬)에게 측량술을 배우고 막명(幕命)에 의해 사할린(樺太)을 조사. 해협을 건너서 흑룡강(黑龍江) 하류를 탐험하여 사할린이 섬임을 확인하였음. 후일 탐정(幕府隱密)으로 밀무역 등의 조사에 종사하였으며 시볼트 사건을 밀고하기도 함. 『東鞆紀行』, 『北蝦夷図説』 등의 저서를 남김. 지금도 일본에서는 사할린섬과 대륙 사이의 타타르해협을 마미야 해협(間宮海峽)이라 부름.

29) 오기칠도(五畿七道)의 하나로 현재의 긴키(近畿)·쥬고쿠(中国) 지방의 동해(일본해) 연안지방. 예전의 단고(丹後), 단바(丹波), 다지마(但馬), 이나바(因幡), 호키(伯耆), 이즈모(出雲), 이와미(石見), 오키(隱岐)의 8국이 산음도(山陰道)에 속하였음. 또는 산음지방을 지나는 길을 의미하기도 함. 지금은 돗토리현(鳥取県)과 시마네현(島根県)을 합해서 산음지방이라고 함.

30) 1리(里)=3.927km. 1.5리=약 6km.

31) 1789~1842. 에도시대 후기의 막신(幕臣)으로 스루가노카미(駿河守), 간조부교(勘定奉行), 오사카마치부교(大坂町奉行) 등을 역임. 오시오 헤이하치로(大塩平八郎)와 친분이 있었으며, ‘덴포의 기아(天保の飢饉)’에서는 미가를 조절하여 백성 구제의 공적을 올렸음.

32) 현재의 시즈오카(静岡) 중부 지역.

33) 오미노쿠니(近江国) 북부의 도시. 현재 시가현(滋賀県) 북부의 시(長浜市).

「덴포(天保) 7년(1836) 신년(申年) 6월

조선국 소유의 죽도에 도해한 사람들은 금번에 오사카마치부교(야베 사다노리 스루가 노카미(矢部定謙駿河守))로부터 에도막부 사지부교(社寺奉行) 이노우에 가와치노카미(井上河内³⁴守)에게 인도되어 로쥬(老中) 미즈노 다다쿠니(水野忠邦) 옛쥬노카미(越中守) 님이 담당하였다.

세키슈(石州)³⁵ 하마다(濱田) 운송업자(廻船問屋) 아이즈야 기요스케(会津屋清助) 사망

위(右)의 아들(粹) 별명 아이키요(会清) 하치에몽(八右衛門)

위(右)는 부친이 기요스케라고 하는 자이며, 이전에 하마다저택(濱田屋敷) 상인의 이름을 잃게 되자 6년 전에 아들 하치에몽이 신청한 건을 몇 해 전부터 부친이 큰 은혜를 받았고 게다가 많은 손해도 보아왔으므로 세금(冥加)³⁶ 때문에 하마다 앞 바다의 죽도라는 곳에 물고기가 많아 어업을 허락해 주신다면 매년 세금(運上)을 헌납할 수 있다는 취지를 에도 저택(江戸表屋敷)에 청원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못하였습니다. 하치에몽도 하마다로 돌아왔으나 이를 여러 곳에 부탁하였던 바, 위(右)의 죽도라고 하는 곳은 하마다 앞 바다에 있는 섬으로 조선으로 갈 때 기항지로 무인도로 되어 있습니다. 하마다에서 이 섬에 건너가면 일본 도검(刀劍) 종류 기타를 고기잡이 어선에 적재하여 어선의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이국인과 교역했다는 것, 도검은 에도에서 오는 여러 지방으로부터 매집하고 가는 길은 하마다번의 지도(繪図)를 사용하였습니다.」

이것은 『죽도도해일건기』에서 하치에몽 진술서의 내용이다. 여기서는 죽도도해 경위와 내용을 나타내주고 있다. 즉 도해할 때는 도검 종류 등을 싣고 가서 돌아올 때는 어선의 모습으로 돌아온다는 것이다. 조선 및 중국과의 교역을 했다는 것이고, 도검은 에도에서 가져와서 섬으로 싣고 갔는데 가는 길은 하마다번의 지도를 이용하고 있었다.

그렇게 하여 죽도밀항의 전모는 밝혀지게 되었다. 그 결과 하치에몽과 산베

34) 가와치(河内). 현재 오사카부의 중부.

35) 이와미국(石見国)의 별칭. 이와미는 시마네현의 동부지역.

36) 에도시대의 세금의 일종. 막부나 번으로부터 영업을 허가 받은 상공업자가 그 대가로 수익의 일부를 헌상하거나 매년 세금으로 납부하던 것. 매년 일정의 세율을 정하여 매년 납부하도록 한 것을 운조(運上, うんじょう)라고 하며, 면허를 받아 영업하는 자가 그 이익의 일부를 상납하는 것을 묘가(冥加, みょうが)라고 불러 구별하였다. 그러나 보통 운조(運上)와 묘가(冥加)를 세금이라는 의미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에는 참형(死罪)에 처했고 관련자들은 직책박탈(役儀取放), 가택연금(押込), 엄중꾸중(急度叱) 등의 중형에 처하였다(<표3> 참조). 도해를 묵인했던 번주 마츠다이라(松平) 스오노카미(周防守)에 대해서는 막부의 측근이라는 점이 참작되어 벽지로 전봉되었다. 스오노카미(周防守) 마츠다이라 야스토(松平安任)는 국학과 한학에도 능통하였고 오랫동안 막부의 로쥬(老中)를 담당할 정도의 영재였으나 이러한 사정으로 은퇴 칩거(隱退蟄居)³⁷⁾가 명해졌다. 그 후임으로 아들 야스타카(康爵)³⁸⁾를 스오노카미로 명하는 판결 이전인 덴포(天保) 7년(1836) 9월 오키슈(奥州)³⁹⁾ 도모쿠라(棚倉)로 전봉(轉封)하여 우에노 다테바야시(上野館林)로부터 마츠다이라우콘노쇼겐(松平右近將監) 나리아츠(斉厚)⁴⁰⁾가 하마다 성주로 들어오게 되었던 것이다.

<표3> 죽도사건 관계자 일람표(武家)

| 재판 결과 | 인명 | 역직 등 | 연령 |
|------------------------------|------------|--------------------------------|-------------------|
| 부주의(不來)에 의한 영구칩거 | 松平下野守康任 | 松平下野守康任, 下野守로 고침 | 1780.5.10 출생. 56세 |
| 御沙汰候御目通差扣格 | 松平周防守康爵 | | 1810.6.6 출생 |
| 관계없음(構無) | 大岡權左衛門 | 側用人 江戸 연봉 240석 | (62세) |
| " | 大塚鉄藏 | 天保傾 御用人 | |
| 관계없음(構無) | 松平亘 | 연봉 600석, 江戸家老 | (53세) |
| " | 大谷作兵衛 | 연봉 250석, 江戸勘定役 | 申63세(64) |
| 괘씸죄(不埒)로 직책박탈(役儀取放) 가택연금(押込) | 村井荻右衛門 | 元吟未役 당시 松平伊織 附人 江戸勘定役 | 61세(63) |
| 괘씸죄로 가택연금 | 三沢五郎右衛門通晴 | 江戸詰 元方役 | 申57세(58) |
| 괘씸죄로 가택연금 | 林品右衛門 | 大坂詰 1831년 11월25일 勘定頭役, 留守居役 無役 | (67세) |
| 괘씸죄로 가택연금 | 嶋崎梅五郎 | 大坂詰 18 | |
| 관계없음(構無) | 霧藤与左衛門 | 文化10~文政10년 勘定頭役 | |
| 관계없음(構無) | 榑崎百八郎 | 百八郎은 町人으로 | 77세 |
| 6월28일 밤 자살함 | 岡田頼母(秋露)元善 | 高 3,000石, 国家老 | 1763생 74세 |

37) 에도 시대 무사에게 가하던 근신형(謹慎刑)의 하나로, 자택이나 일정한 장소에 틀어박혀 근신시키는 일. 종신형은 영칩거(永蟄居)라고 하였음.

38) 마츠다이라 야스타카(松平康爵), 1810-1868. 하마다번(浜田藩)의 제4대 번주. 3대번주 마츠다이라 야스토(松平康任)의 차남으로 태어나 형 야스히사(康寿)의 죽음으로 가독의 상속권자가 됨. 아버지 야스토(康任)가 국금으로 되어 있었던 밀무역(죽도사건)에 의해 강제 은퇴(強制隱居)된 데다가 영칩거(永蟄居) 처벌이 되어 가독(家督)을 상속받음. 그러나 밀무역에 의한 처벌이 계속되어 1836년 3월 12일 무츠 다나쿠라번(陸奥棚倉)으로 이봉(移封)되었음. 1854년 동생이자 양자인 야스카도(康主)에게 물려주고 은거하였음.

39) 무츠국(陸奥国)의 별칭. 지금의 아오모리현(靑森県) 지역.

40) 1783~1839. 마츠다이라 나리아츠(松平斉厚). 에도시대 후기의 다이묘(大名)로 우에노 다테바야시번(上野館林藩) 3대 번주(藩主). 후일 이와미 하마다번(石見浜田藩)의 초대 번주가 되었음.

| | | | |
|-------------------------|-------------------|--|--------------------|
| 관계없음(無構) | 滿壽 | 秋露妻 | |
| " | 岡田八十郎 | 元善의 손자 元凱(1827년(38세)사망함 | 13세 |
| 괘씸죄로 임중꾸중 (岡田賴母 變사) | 杉浦仁右衛門 | 岡田賴母에게 50석, 岡田八十郎 소사(召仕) 八十郎유년 家事向請取扱 | |
| 관계없음(無構) | 並平 | 岡田八十郎 소사(召仕) | |
| 부주의(不屆)로 사형에 처함(遠嶋伺) | 橋本三兵衛 (三平) | 岡田賴母召仕, 岡田八十郎 召仕 | 1778년생(?) (59세) |
| 6월 29일밤 자살 | 松井図書 元良 | 高 400석, 年寄役 | 34세(36) |
| " | 松井遊山 | 松井図書 부친 | |
| 괘씸죄로 임중꾸중 (松井図書變死) | 南又右衛門 名代吉江秀右衛門 | 松井図書 친척 | |
| 괘씸죄로 가택연금 (변사장소) | 谷口勘兵衛 | 高 1000석, 家老 | |
| " | 堀作太夫 | 1807년 御近習 文化14년 供頭, 年寄役 | 69세 |
| 괘씸죄로 가택연금 | 三宅矢柄介 | 年寄(役) | 48세 |
| 직책박탈 가택연금 | 杉村但馬 | 宗対馬守義實家來 家老 | |
| 관계없음(構無) | 大森羽客 | 増山河内守正寧, 1833년 若年寄(勢州桑名郡 長島) 家來 | |

출전: 森須『八右衛門とその時代』, p.32에서 인용.

주: 죄명의 의미는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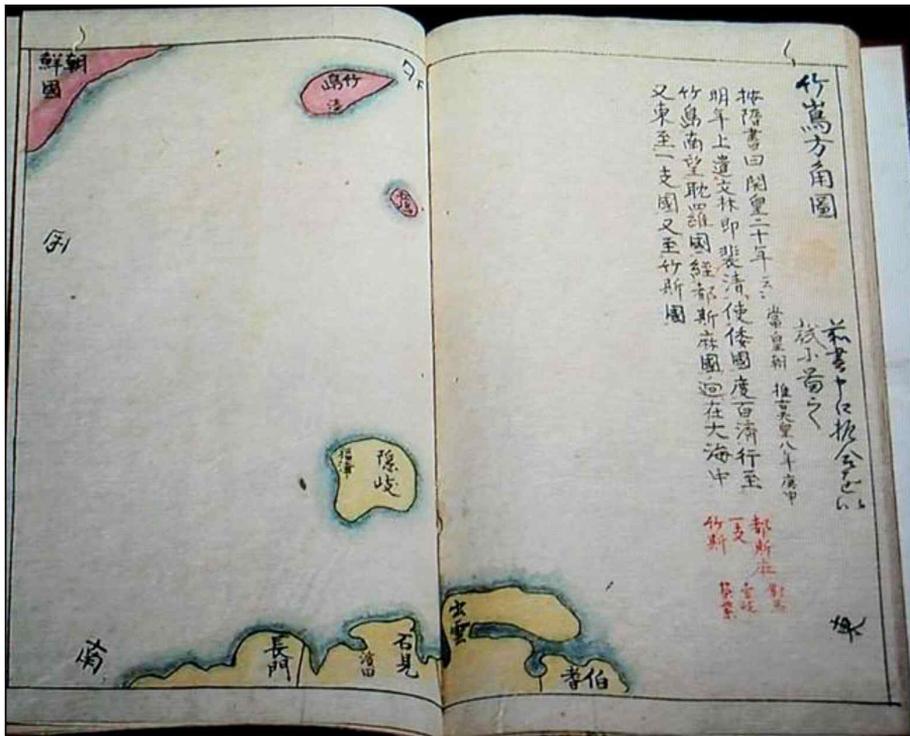
부주의(不束), 부주의(不屆), 괘씸죄(不埒), 직책박탈(役儀取扱), 가택연금(押込), 임중꾸중(急度叱), 관계없음(構無) 등.

4. 하치에몽 사건과 울릉도·독도 인식

당시 이 하치에몽 사건을 조사·재판하면서 정리하여 그 전모를 기록한 것이 『죽도도해일건기(竹島渡海一件記)』인데 여기에는 주모자이자 선장 역할을 했던 하치에몽이 오사카마치봉행소(大坂町奉行所)에서 진술한 것을 정리한 책자이다. 이 문서의 권말에 「죽도방각도(竹嶋方角圖)」라는 제목의 지도가 첨부되어 있다. 그 제목 아래에는 “전서(前書)에서 말한 진술을 참고로 그렸음(前書申口振合を以試に図之)”이라고 쓰여 있다. 즉 “지금까지 진술의 상황에 근거하여 시험 삼아 작성한 지도”라는 설명문이 붙어 있는데, 이 지도에서는 ‘죽도(竹島)’와 ‘송도(松島)’ 두 섬이 모두 우리나라(한반도)와 같은 빨강색으로 채색되어 있다. 노란색으로 채색된 일본의 오키(隱岐)나 혼슈(本州)와는 명확하게 구별되어 있는 것이다. 이 지도는 산음지방에서 겐로쿠시대에 도해했던 오야(大谷) 가의 지도 등을 참조하여 하치에몽이 실제 울릉도 도항을 하면서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그린 것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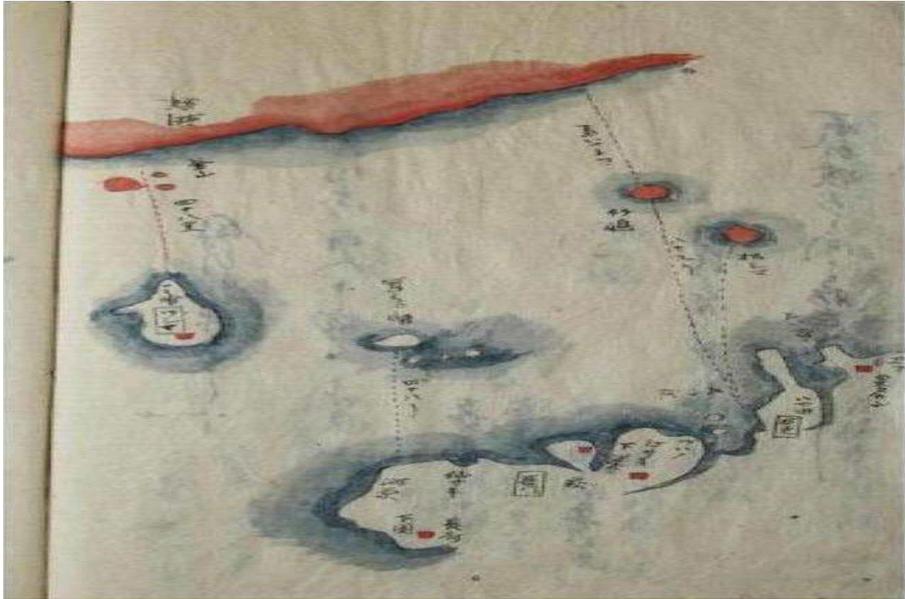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당시 에도막부는 「죽도방각도」 등으로 사건 정보를 입수하

여 전국에 발령한 「죽도도해금지령(竹島渡海禁止令)」(御觸書)의 대상으로 죽도뿐만 아니라 금지령에서 도명이 적혀있지 않은 송도까지도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는 점이다. 당시 죽도(울릉도) 도항을 감행했었던 하치에몽은 물론, 중앙정부인 막부 당국도 죽도(竹島)와 송도(松島)를 한 묶음으로 하여 조선의 영역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그림1〉 참조)



〈그림1〉 『죽도도해일건기(竹島渡海一件記)』41의 「죽도방각도(竹島方角圖)」

41) 『竹島渡海一件記』(東京大学附属図書館所蔵).



<그림2> 『조선죽도도항시말기(朝鮮竹嶋渡航始末記)』⁴²⁾의 침부지도

일찍이 가와카미 겐조(川上健三)가 “위의 가까운 송도에 도항한다는 명목으로 죽도에 건너가 돈벌이를 추구하였다”고 한 하마다번(浜田藩) 가로(国語家老)⁴³⁾ 오카다 다노모(岡田頼母)의 하인 하시모토 산베에(橋本三兵衛)의 진술을 인용하여 “이 사건 당시에도 송도(松島)로의 도항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⁴⁴⁾ 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죽도도해일건기(竹島渡海一件記)』에 의하면 당시 하마다(浜田)에 거주하였던 이마즈야 하치에몽(今津屋八右衛門)은 하마다번(浜田藩) 에도번저(江戸屋敷)에 근무하는 간조가타(勘定方)⁴⁵⁾ 무라이 하기에몽(村井萩右衛門)에게서 “죽도는 일본의 땅(=일본령)이라고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도해계획은 중지하도록 하라”는 내용의 서신을 받았으나 단념하지 않고 도해의 결심을 누그러뜨리지 않았

42) 『朝鮮竹嶋渡航始末記』(島根県浜田市立図書館所藏)는 덴포 죽도일건 관계의 기록류를 모은 책자 형식의 문서이지만, 문서 성립의 유래(사정)와 시기, 전존의 경위 등은 알려져 있지 않다. 또한 침부된 지도에 대해서도 지도가 작성된 경위와 시기를 나타낸 기술은 되어 있지 않아 자세한 것은 잘 모른다. 원래는 무채색의 지도가 침부되어 있었던 것을 이 사료를 발굴한 모리스(森須) 씨가 사료기록을 바탕으로 채색했다는 설도 있다.

43) 에도시대 번(藩)의 가로(家老)를, 에도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경우 ‘에도즈메(江戸詰)’, 자신의 영지(国元)에 재주하는 경우 ‘구니즈메(国詰)’라고 구분하여 불렀던 명칭.

44) 川上健三, 『竹島の歴史地理学的研究』, p.191.

45) 에도시대 막부(幕府)나 번(藩)에서 금전의 출납(회계 업무)을 담당했던 관리.

다. 그 서신을 가지고 구니즈메가로(國語家老)의 가신 하시모토 산베에(橋本三兵衛)에게 찾아가 가로의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청했다고 한다.⁴⁶⁾ 게다가 이 『죽도도해일건기』에는 그 후 상황을 들으러 간 하치에몽(八右衛門)에게 산베에(三兵衛)가 “에도 막부가 죽도도해를 금지한다고 한 이상 죽도는 그만두고 송도로 도해하면 어떨까”라고 하는 가로의 생각을 전달한 것과, 그것을 들은 하치에몽이 산베에에게 “송도는 작은 섬이기 때문에 전망이 없지만, 에도 막부에는 송도에 간다고 하고 실제로는 죽도로 도해하여”라며 ‘송도(松島)’를 ‘죽도(竹島)’ 도해의 명목으로 사용한다고 하는 생각을 말한 점 등 하마다번국(浜田藩国) 사람들이 죽도(울릉도) 도해를 은밀히 상의하고 있던 모습을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죽도도해일건기』의 기록은 다음과 같다.

같은 달(1832년 1월) 18일, 에도(江戸)에 있는 하기에몽(萩右衛門) 쪽에서 저 (=하치에몽)에게 서신이 왔습니다. 문면의 취지는 죽도의 건은 일본의 땅이라고 하기 어렵기 때문에 도해 계획은 중지하라고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때 처음으로 위와 같이 이외의 통보를 받게 되어, 바라는 바가 허무하게 되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날 산베에(三兵衛) 쪽에 위의 서신을 지참하여 다노모(頼母) 쪽에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그 후 상황을 물어온바 위와 같이 에도로부터 내려온 것은 죽도 쪽은 그만두고 송도에 도해해 보는 것은 어떨까라고 한 것을 산베에(三兵衛)가 들었습니다. 송도의 건은 소도로서 전망이 없지만 에도에는 위 송도의 명목으로 죽도에 도해해보고, 만약 바깥으로 발각이 났을 때는 표착을 했다고 말씀드리면 자세한 것은 추궁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산베에에게 말하자 그 뜻을 양해한 다음 서둘러 도해하여 섬의 방위를 자세히 살펴 예상대로 일을 진행하면 될 것이고, 더욱이 취급방법도 있을 것입니다.⁴⁷⁾

막부 당국은 위와 같이 하치에몽(八右衛門) 일행이 생각하고 있었던 송도에 간다고 하고 죽도에 건너가서, 만일 발각되면 표착(漂着)한 것으로 하는 둘러대기

46) 『竹嶋渡海一件記』(東京大学附属図書館所蔵).

47) 「同月十八日、江戸詰萩右衛門方ママ私へ向書状至來、文面之趣意者、竹嶋之儀日出之地共難差極候付渡海目論見相止可申段申來候付、其節始而右之次第承案外之至ニ而志願空敷相成残念ニ存、即日三兵衛方へ右來狀持參いたし頼母勘弁之儀相頼置、其後様子尋ニ罷越候処、右様江戸表ママ申來候上者竹嶋之方相止松嶋之方渡海いたし試可申分被仰聞候趣三兵衛申聞候付、松嶋之儀者小嶋ニ而見込無候得共江戸表へハ右嶋之名目を以竹嶋へ渡海いたし、試万一外ニより相渡候時ハ漂着之姿ニ申唱候ハ、子細有之間敷与論存候旨三兵衛へ申聞置候処、其段承知之上早々渡海致、嶋方及細見弥見込之通無相違候ハ、猶取扱方も可有之」.

식의 변명을 인정하지 않았음은 이 사건의 처분을 보면 분명히 드러난다. 그 이유는 위의 「죽도방각도(竹嶋方角圖)」와 「죽도도(竹嶋圖)」를 보면 명확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 시마네현 죽도문제연구회가 발행한 『죽도문제 100문 100답』에서 하치에몽 사건을 기술(杉原隆)하고 있는 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

직승선장(直乘船頭)으로 운송업을 하고 있던 하치에몽(八右衛門)은 이따금 하마다의 마츠바라우라(松原浦)에서 에치고(越後) 방면으로 물품을 운송하고 있었다. 그 항로는 죽도(울릉도의 당시 호칭)와 송도(현재의 죽도) 사이가 중심이므로, 하치에몽은 두 섬의 상황을 자주 육안으로 확인하고 있었다. 그는 특히 죽도의 울창한 삼림자원의 이용가치를 실감했다. 그가 살고 있는 하마다번의 재정이 궁핍함을 알고 있던 터라 그는 하마다 번사 하시모토 산베에(橋本三兵衛)에게 “죽도에 건어가 자연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대나무와 나무를 벌채하고 죽도와 송도의 해산물을 가지고 돌아오면 번의 이익이 될 것이다”고 진언하였다. 하마다번의 가로(家老) 오카다 다노모(岡田頼母)와 도시요리역(年寄役) 마츠이 즈쇼(松井凶書)도 이 제안에 관심을 가져 번주에게 판단을 요청하고 있었다. 당시 하마다번의 번주 마츠다이라 스오노카미 야스토(松平周防守康任)는 막부의 필두로쥬(筆頭老中)로 에도에 머물고 있었다. 얼마 안 돼 에도저택에서 하마다로 회답이 오기를, “죽도(울릉도)는 일본 땅이라고 하기 어려워니 인정할 수 없지만 송도(죽도)라면 좋다”고 했다. 하치에몽 등은 송도에 간다는 명목으로 죽도로 가기로 결정하고, 그 자신과 자금제공 담당 아와지야 켄베에(善兵衛), 뱃사공 시게스케(重助), 신베에(新兵衛), 구메쥬(久米藏), 오토고로(音五郎), 야스키치(安吉), 신사쿠(新作) 등 모두 8명이 1833년 6월 15일 하마다번의 마츠바라우라(松原浦)를 출발했다.⁴⁸⁾

여기서 「덴포 죽도일건(天保竹島一件)」을 해설하고 있는 스기하라 다카시(杉原隆)는 “「죽도(울릉도) 도해는 인정할 수 없으나 송도(죽도)라면 좋다」고 회답한 것은 하마다번(浜田藩) 에도번저(江戸屋敷)이며”, 그것에서 “막부의 필두로쥬직(筆頭老中職)인 자가 송도는 명확히 일본령이다 라는 인식을 나타내고 있다”⁴⁹⁾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의 사료 『죽도도해일건기』 및 『조선죽도도항시말기』를 보더라도 “송도를 명목으로 하여 실제로는 죽도로 도해한다”⁵⁰⁾는

48) 竹島問題研究会(2014), 『竹島問題100問100答』, pp.150-151.

49) 竹島問題研究会(2014), 『竹島問題100問100答』, p.150, p.152.를 참조.

50) 하시모토 산베에(橋本三兵衛)의 판결문에서 ‘송도의 명목’에 관한 부분은 다음과 같음. 「하시모토

생각은 성립될 수 없다. 위에서 보면 ‘송도라면 좋다’고 했다는 것은 당시 죽도 도해에 모의했던 하마다번 현지 주민 중 일부의 생각일지는 모르나 그때 에도에 체류하고 있었던 번주의 생각이 전혀 아닌 것이다. ‘송도라는 명목’에 관해서는 하시모토 산베에(橋本三兵衛)에 대한 판결문 중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도해의 허락을 이끌어내기 위해 송도 도해의 명목으로 건너가 죽도로 갔다가 만일 적발이 되면 바람에 밀려왔다고 변명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이지 에도 번저의 의견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도문제연구회의 『죽도문제 100문 100답』에서는 ‘송도의 명목’이 하마다번 에도 번저의 견해인 것처럼 곡해하고 있으나 이것은 명백히 사실과는 다르다.

5. 맺음말

본고에서는 「天保竹島一件」의 전말과 주모자인 이마즈야 하치에몽의 행적을 주적함으로써 당시 일본(인)의 울릉도·독도 인식을 검토하고자 했다. 안용복 사건으로 야기된 울릉도쟁계가 1696년 1월에 「죽도도해금지령」(제1차)으로 막을 내렸고, 이 하치에몽 사건으로 말미암아 쇄국정책(해금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었던 도쿠가와 막부는 1837년 「죽도도해금지령」(제2차)을 발령하게 되었다. 겐로쿠 시기의 도해금지령이 쓰시마와 산음지방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면 이것은 일본 전국의 해안가를 대상으로 한 포고령이었다.

안용복 사건 이후 울릉도 방면으로 일본인의 출입은 잠시 잠잠했었다. 그러나 조선 측에서는 남해안 연안민 등이 꾸준히 드나들었고, 일본 측에서도 더러 잠입하는 자가 있었을 것이다. 이들은 양국 정부 몰래 밀무역을 하곤 했었지만 이 하치에몽 사건이 발생하기까지는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19세기 초에 들어와 거래가 빈번해지고 그 규모도 커졌던 것이다. 본고에서 밝혀진 사항을 정리하는 것으로 마무리에 가름하고자 한다. 첫째, 하치에몽의 도항 목적 등이 울릉도에서의 벌목 등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사실은 필리핀, 중국, 남양지방의 산물 등을 울릉도에서 밀무역을 하는 일이 주된 활동내용이었

산베에(橋本三兵衛)는 중재의 일을 하치에몽에게 부탁받아 슈사이(秋齋, =가로·오카다 다노모(岡田 頼母))도 도해를 허락하도록 하고 싶어서, 죽도에만 금지된 이상 송도의 명목으로 바람에 떠밀려 죽도에 건너왔다고 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을까. 위는 그쪽에서 움직여 하치에몽에게 전하는 사람도 있어서 내밀히 이야기하였다. 『天保雜記』第18冊, 內閣文庫所藏叢刊33, p.31.

다. 둘째, 이때 하치에몽은 겐로쿠시대 오야(大谷) 가문의 지도를 바탕으로 작성한 지도로 도해하였고 나중에 이 지도를 새로 제작하고 있다. 막부의 재판과정에서 제출한 지도 및 도해시 사용한 지도를 보면 하치에몽의 울릉도·독도 인식을 명확히 할 수 있다. 이 두 지도 모두에서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 본토와 같은 붉은 색으로 채색되어 있다. 즉 하치에몽은 울릉도(죽도)뿐만 아니라 독도(송도)까지도 조선의 영역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당시 일본 산음지방 연안민들은 물론 중앙 정부인 막부의 울릉도·독도 인식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참고문헌】

- 윤유숙(2011), 「18~19세기 전반 朝日 양국의 울릉도 도해 양상」 『東洋史学研究』 제118집, 2012, pp.281-321.
- _____ (2011), 「『天保雜記(천보잡기)』所收 울릉도(죽도) 관련 사료」 『영토해양연구』 창간호, pp.266-273.
- 송취영(2014), 『일본 향토사료 속의 독도』 도서출판선인.
- 朴炳涉(2015), 「元禄·天保竹島一件と竹島=独島の領有権問題」 『鳥取短期大学北東文化研究』 제40호, pp.23-45.
- 杉原隆(平成19年), 「八右衛門、金森建作、松浦武四郎の「竹嶋之図」について」 『竹嶋問題に関する調査研究』最終報告書, 竹嶋問題研究会, pp.22-26.
- 竹内猛(2014), 「竹島=独島編入当時の日本人の領土認識」 『郷土岩見』第95号, pp.36-53.
- 第3期竹嶋問題研究会, 『竹嶋問題100問100答』, WiLL2014年3月増刊号.
- 藤原芳男編(1988), 『竹嶋事件史』, 浜田市観光協会.
- 森須和男(2002), 『八右衛門とその時代』, 浜田市教育委員会.
- 藤原芳男編(1988), 『竹嶋事件史』, 浜田市観光協会.
- 岩見史談会編·大島幾太郎執筆(1935), 『濱田町史』, 濱田町史編纂係年.
- 『竹嶋渡海一件記』(東京大学附属図書館所蔵)
- 『朝鮮竹嶋渡航始末記』(浜田市立中央図書館所蔵, 번각은 『新修島根県史·史料篇(近世下)』에 수록)
- (1983), 『天保雜記』(内閣文庫所蔵史籍叢刊33~34), 汲古書院.
- (2014), 『甲子夜話·三篇』卷29·卷38(平凡社 『東洋文庫』(418), 中村幸彦·中野三敏校訂, 1983年).

| |
|--------------------------|
| 논문 투고 일자 : 2015. 12. 31. |
| 논문 심사 일자 : 2015. 12. 12 |
| 게재 확정 일자 : 2016. 1. 2 |

＜ 要 旨 ＞

「天保竹島一件」から見る日本の鬱陵島・独島認識

宋彙榮

本稿の目的は、天保竹島一件(竹嶋事件)を通じて事件の中心人物である今津屋八右衛門の足跡を追跡することで当時八右衛門の鬱陵島・独島認識を明らかにすることである。安永福事件以後、鬱陵島方面への日本人の渡海はしばらく停滞することとなった。しかし朝鮮側では南海岸沿岸の住民などが絶えず鬱陵島・独島へ渡航しており、日本側からもたまたま渡航する者がいたはずである。かれらは両国政府に知られることなく密貿易をしたりしていたが、この八右衛門の事件が発生するまでは表面化していない。本稿で明らかになった事実は、以下のとおりである。第一に、八右衛門の渡航目的が鬱陵島での伐木などと知られていたが事実はフィリピンや中国、南洋地方の産物などを鬱陵島で密貿易をすることが主な活動内容であった。第二に、この時八右衛門は元禄時代に大谷家の地図をもとに作成した地図をもって渡海しており、後には竹嶋(鬱陵島)の地図を新たに製作していることである。幕府による裁判の過程で提出した地図及び渡海の際使用した地図を見れば、八右衛門の鬱陵島・独島認識が明確に理解できる。この二つの地図すべてにおいて、鬱陵島と独島は朝鮮本土と同じく赤い色に彩色されている。これは当時の日本の山陰地方沿岸民の鬱陵島・独島に関する認識を反映するものといえよう。

Japanese Recognition on Ulleungdo and Dokdo in Regard of the Case of
Tenpo-Takeshima-Ikken(天保竹島一件)

Song, Hwi-Young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verify the Japanese Hachiemon(八右衛門)'s recognition on Ulleungdo and Dokdo by chase him of the central role in the Case of Tenpo-Takeshima-Ikken(天保竹島一件). There was least Japanese invasion to the islands of Ulleungdo-Dokdo after the event of Ahn Yong-bok. But Korean(Choseon) fishers continuously landed on the island and Japanese might have landed secretly on the islands to fish often. They should have smuggled secretly but the fact was not revealed until Hachiemon event breaking out. This paper revealed as follows. First, as known the purpose of Hachiemon to cross to Ulleungdo was logging trees on the island but his main activity on the island was to smuggle the products from Philippine, China, and Southeast Asia. Second, Hachiemon at the time crossed to Ulleungdo on the basis of Ohya(大谷) family map during the Kenroku period and he created new map. The map he used and submitted to the court during the Bafuku lawsuit explain the recognition of Hachiemon on Ulleungdo and Dokdo. The two maps also expressed the two island red color as the same color of Korean (Choseon) territory. This fact reflected the recognition of Japanese who have lived around Sanin region on the two islands.